

필암서원연구(筆巖書院研究)

—필암서원지 해석을 중심으로—

조상순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목 차

I. 서론

II. 본론

1. 필암서원 건축

2. 필암서원지의 구성

II, 결론

I. 서론

논문은 필암서원에서 1975년에 편찬된 『필암서원지』¹⁾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본문에 실린 내용은 필암서원지에 나타난 필암서원의 건축과정에 관한 언급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다. 또한 건축뿐만 아니라 당시대의 시대상황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을 원문 그대로 옮기고 번역하여 서원 연구에 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필암서원지의 내용에 관해서는 송정현, 「필암서원연구(筆巖書院研究)」(『역사학연구』 X, 전남대, 1981)를 비롯하여 몇몇 문헌에 약간 언급된 바 있으나 대부분이 문학적인 측면에서의 언급에 그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먼저 필암 서원 건축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 필암서원지의 구성과 그 내용에 대하여 서술하되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필암서원지에 기록된 원문을 함께 게재하였다.

II. 본론

1. 필암서원 건축

조선시대의 서원은 사림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사림 교육기관으로 공립 교육기관이었던 향교와 함께 지방에서의 유학 교육을 담당하였다. 서원교육은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유학의 예제적 질서 체계가 공간적인 측면에서 잘 나타나 있으며, 중종 38년(1543)에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 후에 소수서원(紹修書院)으로 사액되면서 조선시대 의 최초의 공인 사설교육기관으로 기록되어 있다. 필암서원은 인조 23년(1590)년에 창건되어 두 차례의 이건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1) 필암서원지는 1975년 6월 10일 인쇄하고 7월 10일 모두 50부의 한정판으로 간행되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 1738년과 1868년, 두 차례의 대대적인 서원철폐가 있었으며 특히 고종 5년(1868)에 진행된 서원철폐과정에서는 전국적으로 47개이 서원만이 존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필암서원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았으며 필암서원은 현재까지 이전 이후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2. 필암서원지의 구성

필암서원지는 모두 1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암서원지 앞부분에서는 필암서원지서(筆巖書院誌序)3개와 구서(舊序) 1개가 각각 2페이지씩 8페이지에 걸쳐 실려 있으며 범례(凡例)와 구범례(舊凡例), 목록(目錄)등도 포함되어 있다. 끝 부분에는 발(跋)2편이 첨부되어 있다. 각 권에 해당하는 소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권지수(卷之首)-치제문(致祭文)2)2편 외(外)
- 권지일(卷之一)-연혁(沿革) 외(外)
- 권지이(卷之二)-하서선생신도비명(河西先生神道碑銘) 외(外)
- 권지삼(卷之三)-청절당제영(淸節堂題詠)16수(首) 외
- 권지사(卷之四)-원장선생안(院長先生案) 외(外)
- 권지오(卷之五)-봉심록(奉審錄)
- 권지육(卷之六)-참제록(參祭錄)
- 권지칠(卷之七)-참제록(參祭錄)
- 권지팔(卷之八)-강안(講案)
- 권지구(卷之九)-산양계안(山仰契案)/부성안(扶成案)
- 권지십(卷之十)-유사록(有司錄) 외(外)
- 권지십이(卷之十二)-장서목록(藏書目錄)/물품목록(物品目錄)
- 구발(舊跋)/발(跋)

필암서원지는 이상과 같은 구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순서에 따라 각 부분을 해석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서는 원문과 함께 표기하였다.

1) 필암서원(筆巖書院지之序)

필암서원지 서문은 모두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암서원지가 편집된 연도는 1975년이다. 첫 번째 쓰여진 서문은 1974년에 안동 김씨 김윤동(金潤東)이 쓴 것이고, 두 번째 서문은 1975년에 안중선(安鍾宣)이 썼다. 세 번째는 후손인 김연수(金季洙)가 썼다. 모두 1975년에 필암서원 고문헌 등을 정리하면서 편집된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겠다

첫 번째 서문은 장성부(長城府)에 위치한 필암서원이 하서 김인후(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타향지소(妥享之所)임을 밝히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본문은 김인후의 (행장行狀)에 관한 것과 문정(文正)의 시호를 받고 문묘에 배향된 사실과 필암서원이 사액(賜額)을 받게 된 시기를 비롯하여, 최종적으로 변시연(邊時淵)이 전해 내려온 문헌을 묶어 필암서원지를 펴내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필암서원지를 펴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2) 목록에는 치제문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사제문(賜祭文) 세 편이 치제문의 위치에 등록되어 있으며 사제문(賜祭文)이 위치한 곳에 사제문 두 편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원문의 순서를 그대로 표기하였다.

세 번째 서문에서는 필암서원이 김인후와 고암 양자징(鼓巖 梁子徵)을 배향하게 된 사실과 필암서원의 연혁에 대하여 간단하게 창건과 사액 시기, 그리고 구성 건물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서문에 따르면 선조(宣祖) 경인년(庚寅年)(선조 23년, 1590)에 창건하고 인조(仁祖) 갑자년(甲子年)(인조 2년, 1624)에 중건하였으며 현종(顯宗) 임인년(壬寅年)(현종 3년, 1662)에 사액을 받고 임자년(壬子年)(1672)에 이 건 하였다고 한다. 또한 인조 이후의 봉심록, 원적, 문계안, 강안, 산양계안, 노비보 등의 10여 권을 묶어 필암서원지라하며 경장각(敬藏閣), 청절당(淸節堂), 확연루(廓然樓), 장서각(藏書閣), 장판각(藏板閣) 등 10여동의 건물과 함께 전해져 내려온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이들 문서는 조선 후기 전남 장성 지방의 사회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구서(舊序)는 정(鄭春源)이 썼으며, 기축년(己丑年) 겨울(冬)에 썼다는 기록과 기타 내용 등으로 보아 1949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유민산(維民山)에 필암서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현 위치인 황룡면 필암리 원필암마을 일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례(凡例)에서는 필암서원지의 편찬과 관련된 규칙과 방법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구범례(舊凡例)에서는 원지에 수록된 문헌들의 편찬순서와 기록하여야 할 내용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또한 유생의 수(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동재(東齋)의 유림은 정해진 숫자가 따로 없다 하고 서재(書齋)의 경우 30명이라 언급하고 있으며, 노비(奴婢)는 각각 30인(본문에서는 인(人)이 아닌 구(口)로 기재하고 있음) 이었다고 한다. 기록하여야 할 내용으로는 서원 내 소장 문서, 즉 축문(祝文), 제문(祭文) 및 상량문(上樑文) 등과 원규(院規), 청절당(淸節堂)에 걸린 편액, 제기(祭器)와 제수(祭需)·악기(樂器) 등 비품(備品)에 관한 설명, 건물 중건(重建) 및 중수(重修)에 관한 기록 등을 언급하고 있다.

2) 권지수(卷之首)

① 사제문(賜祭文) 3편/문묘종사교서(文廟從祀敎書)/문묘종사반교서(文廟從祀頒敎書)

첫 번째는 현종(顯宗) 3년(1662)에 필암서원이 사액을 받으면서 지은 제문(祭文)이다. 제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김인후를 배향하고 사(祠)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사액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다. 두 번째 사제문은 정조(正祖) 병오년(丙午年)(1786) 4월 부승지(副承旨) 박천행(朴天行)이 쓴 것이다. 세 번째 사제문은 정조 병진년(丙辰年)(1796) 11월 부승지 이면공(李勉兢)이 쓴 것이다. 문묘종사교서와 분교서는 김인후의 문묘배향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적은 기록이며 필암서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많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였다.³⁾

② 사제문(賜祭文) 2편

첫 번째는 순조(純祖) 무자년(戊子年)(1828)의 기록이며 위의 사제문과 비슷한 내용으로 효릉(孝陵)의 공독을 기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문정(文正)의 시호를 내린 사실 등을 언급하고 있다.⁴⁾ 두 번째는 철종(哲宗) 을묘년(乙卯年)(1855)의 것으로 비슷한 내

3)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다음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국 사사료 연구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CD-ROM』

拙稿, 「筆巖書院의 建築의 特徵에 관한 研究」, 『成大 건축공학과 석사 학위 논문, 1998』, pp232 ~233.

4) 순조 28년(1828)에 실제로 순조는 김인후의 사판(祠版)에 치제하였다고 한다. -한국사사료연구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CD-ROM』

용을 언급하고 있다.⁵⁾

③문묘승배고유문(文廟陞配告由文)

지제조(知製敎) 박재순(朴載淳)이 쓴 것으로 되어 있다.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문묘에 승배된 시기가 정조 20년(1796)11월로 되어 있고 이 때 문정(文靖)이었던 시호를 문정(文正)으로 개기(改觀)하였다고 하는 사실로 보아 이 문헌은 이 시기 전후의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상 특기할 만한 내용은 없으므로 생략한다.

④서원전도(書院全圖) 외(外)

필암서원과 관련된 문서 중 도판으로 표기된 부분이다.

먼저(書院全圖)는 비교적 근래의 것이나 현재 없어진 건물의 위치와 규모 형태 등을 알려주는 중요한 건축적 단서가 되고 있다. 또한 중요한 수목의 위치와 건물명도 병기되어 있다.

연원도(淵源圖)는 주향인물인 김인후의 사상적 흐름을 보여주는 도식이다. 김인후는 어렸을 때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⁶⁾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여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호와 이름을 표기하였다. 이 중 필암서원의 건립에 참여한 사람으로 변성온(卞成溫)과 기효간(奇孝諫) 등이 있다. 이 중 양자성(梁子生)⁷⁾은 후에 필암서원에 배향된다.

진설도(陣設圖)는 제사상 차릴 때의 지설음식 배치를 도식화 한 것이다. 제기도 역시 제사에 사용되는 각종 그릇과 도구들을 그림으로 그려 놓고 설명한 것이다. 또한 예복도(禮服圖)도는 제례시 입는 의복을 그려 놓은 것이다.

사상견례도(士相見禮圖)는 사상견례라는 의례를 행할 때 대부(大夫)와 사(士)와 서인(庶人)등의 위치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사상견례는 필암서원의 강당 남측에서 진행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의례의 순서는 다음 권에서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향음주례도(鄉飲酒禮圖) 역시 향음주례⁸⁾를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며, 담알례도(瞻謁禮圖)는 담알례에 따른 사당 영역에서의 제관들의 위치를 그려 놓은 것이다. 상읍례도(相揖禮圖)는 상읍례⁹⁾따른 재생(齋生)의 위치와 이동순서를 그려 놓은 것이다. 향약의는 동서남북의 방위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으며 역시 의례시 참가자의 위치를 도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강좌도(講座圖)는 강학시의 강사와 재생의 위치를 그려놓은 것이며, 강학 활동은 강당에서 이루어진다. 원신도(院信圖)는 필암서원의 공공문서에 사용하였던 원장(院章)의 모양과 직인(職印) 모양을 모사해 놓은 것이다.

(3)권지일(卷之一)

①연혁(沿革)

5) 철종 또한 다음해인 병진년(丙辰年)에 김인후에게 사판(祠版)을 내리고 치제하게끔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한국사자료연구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CD-ROM』

6) 1478~1543. 조선 중종 때 성리학자. 김굉필(金宏弼)의 문인

7) 1523~1594. 호는 고암(鼓巖). 양산보(梁山甫)의 차남. 정조(正祖) 10년(1786) 필암서원에 배향됨.

8) 이것은 주대(周代) 향학(鄉學)에서 3년의 수업을 마칠 때, 그 덕행(德行), 도예(道譽)를 고찰하여 현자(賢者), 능자(能者)를 임금에게 추천하였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여기서 향대부(鄉大夫)가 주인이 되어 연회를 벌이는데 이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현재 필암서원에서는 손님들을 나이순으로 자리에 모셔두고 주인이 음식을 접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내고장 전통가꾸기 장성군 편찬위원회, 『내고장 전통가꾸기』(장성군, 1981), pp.164~165.

9) 학문에 이르는 길을 상징적으로 도식화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일종의 통과 의례라 할 수 있다.

선조 23년(1590) 창건 이후의 기록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조 23년(1590) 호남유생에 의하여 장성부 서쪽 10리의 기산(岐山)에 사묘건립. 호암(壺巖) 변성온(卞成溫)과 금강(錦江) 기효간(奇孝諫) 등이 중창.

▷선조 30년(1597) 병란으로 소실.

▷인조 2년(1624) 증산(甌山)에 복설. 추담(秋潭) 김우집(金友迭)이 상량문을 찬(撰)함.

▷효종 9년(1658) 호남 유생이 사액을 청하는 소(疏)를 올림

▷현종 3년 (1662) 필암서원으로 사액받음.

▷현종 13년(1672) 물난리로 흠다리가 위험해지자 이진함.

▷영조 20년(1744) 확연루 보수. 수 년 후 화재로 소실됨.

▷영조 28년(1752) 확연루 증건.

▷영조 35년(1759) 동재 및 서재 중수.

▷영조 40년 (1764) 문루에 단확(丹廬)함

▷영조 51년(1775) 강수청(講需廳) 신축.

▷고종 23년(1886) 사우 보수 및 단확, 고사 신축.

▷고종 24년 (1887) 동재 및 서재 증건, 강당·문루 보수 및 단확. 전담 확충.

▷융희 (1926) 광명등 건립. 고사·행랑 신축. 사우·강당·양재·문루·장대석 설치.

▷융희 (1938) 강당·고사 개수(改修) 문랑(門廊)과 묘정(廟廷) 포장.

▷1941년 사우 증건. 신문 및 경장각 수리.

▷1953년 산양계 및 강회 설치.

▷1956년 한장사(汗丈舍) 개수

▷1967년 확연루, 양재, 신문, 고직사, 창고 해체 및 보수. 확연루 단청.

▷1968년 필암교 건설.

▷1970년 장서각 건설.

▷1972년 청절당 개와(蓋瓦). 전기 설비 설치.

▷1973년 주변 건물 8동 철거. 대지 확장.

▷1974년 장원(랄원(癩垣)) 개축

▷1975년 필암서원 일곽 사적(事蹟) 제 242호로 지정.

고문서 일곽 보물(寶物) 제 567호로 지정.

② 위치(位置)/ 형승(形勝)/설비(設備)

위치는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번지로 되어 있다. 주변 형승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풍수지리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즉 서원 앞을 휘어 감는 문장천(文章川)을 명당수(明堂水)로 보고 있으며 좌측의 기산(岐山)과 우측의 추산(秋山), 그리고 향로봉(香爐峯)을 진산(鎭山)으로 보고 있다. 설비에서는 사당(祠堂)을 비롯한 24개의 원내 건물(10)과 2개의 우물, 정원(庭園)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건물의 경우 각각 좌향(坐向)과 건물 규모, 칸 수, 면적, 건물의 용도와 특징 혹은 건물 내부에 걸려 있는 편액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보물로 지정된 고문서는 노비보, 원장 선생안, 집강안, 문계안,

10) 사당(祠堂), 전사청(典祀廳), 신문(神門), 경장각(敬藏閣), 강당(講堂), 동재(同齋), 서재(西齋), 문루(門樓), 장서각(藏書閣), 장관각(藏板閣), 직사(直舍), 창고(倉庫), 한 장사(汗丈舍), 차노사(差奴舍), 홍전문(紅箭門), 내문(來問) 5동(棟), 변소(便所) 2동(棟). 대부분이 자좌오향(子坐午向), 즉 정남향이다.,

서재 유생안, 원적, 서원성책(서원성책(書院成冊), 노비안, 봉심록, 양자징각축관계품목(梁子徵各祝關係稟目) 등이다. 학전(學田)과 위전(位田)은 답(沓), 전(田), 대(垚), 산(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③임원(任員)/유생(儒生)/노비(奴婢)

구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원장(院長) 1인/원이(院貳)1인/진신장의(縉紳掌議) 1인/ 유림장의(儒林掌議) 1인

유림색장(儒林色掌) 2인/ 강수재강장(講修齋講長) 1인/접유사(接有司) 1인

장재(掌財) 1인/과년(過年)1인/당장(堂掌) 1인

이에 반하여 현인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도유사(都有司) 1인/도장의(道掌議) 1인/ 도색장(道色掌) 1인/ 장의(掌議) 1인

색장(色掌) 1인/ 별유사(別有司) 1인/ 산양계장(山仰契長) 1인/ 부계장(副契長) 2인

총무(總務) 2인/재무(財務) 1인/간사(幹事) 약간인

노비는 각각 30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없고 한장(汗丈)만 있다고 한다.

④원의절(院儀節) /구원규(舊院規)/ 현원규(現院規)/ 사전(祀典)

원의절에서는 임원(任員)들이 지켜야 할 서원운영상의 규범을 나열해 놓았으며 모두 12항목으로 되어 있다. 원규는 임원들의 자격 요건과 임기, 직위 순서와 서원운영방법 등을 나열하고 있으며 구원규는 모두 18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현원규는 구원규 외에 8항목을 덧붙이고 있다. 이것은 시대가 바뀜으로 인하여 임원자격 요건 변화와 명칭의 변화에 따른 것이며 서책과 문적(文蹟)의 대출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모든 임원은 도 내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으나 구원규 원장과 현원규의 도유사(都有司)는 지역을 불문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사전에서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향사는 연 2회, 음력 2월과 중정(中丁)11일에 행하며 국기(國忌)에 구애받는 경우 말정(末丁)일 혹은 말해(末亥)일로 정하고 있다. 제관¹²⁾은 제사 전날 모여 선정한다.

제복(祭服)에는 유건(儒巾)¹³⁾, 제복(濟服), 대대(大帶)¹⁴⁾, 등말(滕襪) 등이 있으며, 계속해서 제기의 종류¹⁵⁾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제사에 사용되는 제수(祭需)¹⁶⁾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 이후에 계속되는 제관망첩(祭官望帖)에는 향사의 순서와 상향축(常香祝)을 비롯한 서식(書式)이 기록되어 있다. 향사 전날 치루는 예(禮)로 충들례(充臚禮)와

11) 모든 날짜에는 간지(干支)가 들어 가게 되고, 한 달은 십간(十干)이 세 번 반복된다. 이 중 가운데, 정(丁)이 두 번째로 들어가는 날을 중정(中丁)일이라 한다.

12) 제관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初獻官)/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 진설(陳設)/ 집례(執禮)/ 축(祝)/ 봉향(奉香)/ 봉로(奉爐)/ 봉작(封爵)/ 존작(尊爵)/ 사존(司尊)/장생(掌牲)/전사(典飼)/ 세작(洗爵)/ 척기(滌器) / 관세(盥洗) /찬인(贊引)/ 찬자(贊者) /알자(謁者) /학생(學生)

13) 유생들이 쓰는 검은 베로 만든 두건. 학생·생원·士등이 착용. 원래는 급제하지 못한 거인(舉人)들이 썼던 장보관(章甫冠)을 지칭함.

14) 중국 고대에 대부가 허리에 매던 띠로 연사(練絲)나 생사(生絲)로 만들며, 넓이는 5촌임.

15) 현재 필암서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기로는 보(簋), 례(簋), 변(籩), 두(豆), 준(尊), 작(爵), 접(拮), 먹(幕), 향로(香爐), 조(俎), 비(篚), 탁(卓), 제수교자(祭需轎子), 이외에도 촉대(燭臺), 촉룡(燭籠), 향합(香盒), 축판(祝板), 차일(遮日) 등이 있다.-필암서원, 『筆巖書院誌』, 卷之一,(필암서원, 1975),p.6.

16) 제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도백미(稻白米) 5승/ 서미(黍米)5승/ 녹포(鹿脯) 6조(條) 어추(魚鮓) 6조/ 녹혜(鹿醢) 2승/ 어혜(魚醢) 2승/ 폐포(幣布)9척/ 시생(豕牲)2수(首)/ 청저(靑菹)2승/ 근저(芹菹) 2승/ 황율(黃栗)2승/ 은행(銀杏)2승/황촉(黃燭)2쌍(雙)/ 축문장지(祝文壯紙)2장(張)/ 단향(丹香)1봉(封)/ 제주(祭酒) 2준(樽)/ 주미(酒米) 6승/ 국자(麩子)2승/ 진석(眞席) 1립/ 황필(黃筆)2병(柄)/ 진묵(眞墨) 2정(丁)/ 정단장지(呈單壯紙) 1장/ 자촉백지(刺燭白紙)1장/ 등유(燈油) 1합/ 세건포(洗巾布) 1척.

제물봉진례(際物奉進禮)가 있다.¹⁷⁾

⑤담알례홀(膽謁禮笏)/ 상읍례홀(相揖禮笏)/ 사상견례의절(土相見禮儀節)/향음주례의절(鄉飲酒禮儀節)/향약의절(鄉約儀節)/ 향사의절(鄉射儀節)

홀(笏)과 의절(儀節) 모두 해당 의례를 치루기 위한 순서이며 각각의 뜻은 이미 앞에서 전술한 바 있다. 그 전과정을 옮기는 것은 단순한 번역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세세한 동작을 하나하나 지시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였다.¹⁸⁾ 다만 그러한 의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의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관의 위치와 이동순서는 그 위계상 유교의 예제에 따랐다는 것이 그 하나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사자(死者)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상(西上)의 원칙에 따라 위패의 배열에 있어 위계가 높은 쪽을 같은 배열에서 서쪽에 치우치게 하였으나, 생자(生者), 즉 제관들은 동쪽이 위계가 높다는 점이다. 또한 사당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도 동쪽으로 올라 서쪽으로 내려가는 이동 경로도 그러하다.

나. 위에서 언급한 의례는 크게 생자(生者)중심의례와 사자(死者)중심의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향사가 사자(死者)와의 교감을 위하여 사당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상견례와 향음주례, 상읍례는 생자(生者)를 위한 의례로 강당의 전면, 즉 사당 영역과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건축물에 의한 공간의 구성과 의례가 상호작용하여 생겨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목차는 없으나 담알례홀에 덧붙여 소학제사(小學題詞), 대학수장(大學首章), 중용수장(中庸首章), 백록동학규(白鹿洞學規), 남전여씨향약(南田呂氏鄉約) 등이 기록되어 있다.

(4) 권지이(卷之二)

①하서선생신도비명(河西先生神道碑銘)

신도비명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필암서원의 사당인 우동사(祐東祠) 명칭의 유래에 관한 것으로 본문의 서두 부분에 ‘천우아동종생하서금선생(天祐我東鍾生河西金先生)’이라는 글귀가 보인다. 이후 계속해서 김인후의 인물됨과 선조에 관한 기록, 관직에 몸담았던 기록, 품성 등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며, 학문적 경향과 성과, 그리고 필암서원의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 뒷부분에 나타나고 있다.

② 필암서원청액소(筆巖書院請額疏)/ 팔도유생박원영등청중향문묘소(八道儒生朴盈源等請從享文廟疏)/ 팔도유생정헌등청중향문묘소(八道儒生鄭憲等請從享文廟疏)/팔도유생심익현등 청중향문묘소(八道儒生沈翼賢等請從享文廟疏)/관학유생홍준원등청중향문묘소(館學儒生洪準源等請從享文廟疏)

첫 번째 등장하는 필암서원청액소는 오이익(吳以翼)의 것으로 제반내용은 김인후와 관계된 내용과 필암서원의 사액을 청하는 내용이나, 굳이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지적한

17) 향사의 순서는 다음 문헌의 논문을 참고하거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필암서원, 『筆巖書院誌』 卷之一, (필암서원, 1975), pp.7~8

拙稿, 「筆巖書院의 建築的 特徵에 關한 研究」, (성대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pp.146 ~152.

18) 위에서 언급한 의례의 순서는 다음 문헌의 원문을 참고하거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필암서원, 『筆巖書院誌』 卷之一, (, 1975), pp.9 ~26.

拙稿, 「筆巖書院의 建築的 特性에 關한 研究」, (成大 건축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8), pp.153 ~162.

다면, “曾在八十年前遠近同聲相應始建祠宇于藏修之所…”¹⁹⁾과 같은 구절을 지적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서부터는 모두 김인후의 문묘 배향을 청하는 문서들이다. 그러나 김인후가 문묘에 배향될 때까지는 이러한 소(疏)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왕조실록에 나타난 상소 기록만 정조 10년 박영원(朴盈源)을 시작으로 정헌(鄭憲), 13년 심익현(沈翼賢)·신광례(申光禮), 14년 이악겸(李岳謙), 20년 김무순(金懋淳)·이종호(李種祐)·채홍신(蔡弘臣)·정대현(鄭大鉉) 이규남(李奎南)·심내영(沈來永)·이광헌(李光憲)·홍준원(洪準源) 등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유생들의 상소 등 모두 13회에 이르며 결국 정조 20년(1796) 11월 8일 기유(己酉)일에 김인후를 문묘에 종사하는 의식을 행하면서 교서를 선포하기에 이른다.

③종향시례조계(從享時禮曹啓)/간집시백유사록(刊集時百有司錄)

앞 문서에는 정조 20년 9월 17일 예조판서(禮曹判書) 민중현(閔鍾顯)이 홍준원을 불러 김인후의 유학과 도학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뒤 문서에는 하서 전집을 발간하였을 당시의 유사(有司) 백여명의 담당 직무와 직책과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정조 때 학자이자 필암서원의 원장선생을 역임한 심환지(沈煥之)와 앞의 민중현이 서판(書判)을 담당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④어화묵죽화제시(御書墨竹畫題詩)/어화묵죽발(御書墨竹跋)/경제(敬題) 인종대왕어제후(仁宗大王御製後)

앞글은 인종이 하사한 묵죽도에 김인가 적어놓은 시(詩)를 옮겨 놓은 것이며, 두 번째 문서는 인종(仁宗)과 김인후의 관계에 관하여 언급하고 이 서화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⑤고암양공행장(鼓巖梁公行壯)/ 양고암기금강변호암삼선생청배소(梁鼓巖奇錦江卞壺巖三先生請配疏)/고암양선생청배소(鼓巖梁先生請配疏)/예조복계(禮曹覆啓)

고암양공해장은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이 숙종(肅宗) 을축년(乙丑年)(숙종 11년, 1685)에 쓴 기록이며 뒤의 두 문헌은 양자정을 서원에 배향하고자 청하는 소(疏)로 숙종 정축년(丁丑年)(숙종 3년, 1677) 전라도 진사 이경집(李敬縉) 등이 올린 것이다. 양자정은 정조 10년(1786) 2월 26일, 필암서원에 배향된다. 예조복계의 주된 내용은 이경집의 상소를 받고 예조에서 화답한 것으로, 배향을 허락하도록 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²⁰⁾

⑥ 사우상량문(祠宇上梁文)/확연루상량문(廓然樓上梁文)/확연루기(廓然樓記)/강수청기(講需廳記)/중수기(重修記)/묘정비(廟庭碑)/사우중수상량문(祠宇重修上梁文)/사우중수기(祠宇重修記)

필암서원은 건축과 관계되어 중요한 기록은 이들 상량문에 상당수 실려 있다. 사우상량문은 모두 2개로 하나는 증산에 복설(復設)하였을 당시인 1624년 김우급이 지은 것이며 다른 하나는 현종 13년(1672)에 현 위치로 이건 하면서 지은 것으로 사우 건립에 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상량문에는 주변 지세의 간략한 묘사와 규모 의 변경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천(역泉) 송명흠(宋明欽)이 영조 28년(1752)에 지은 확연루 상량문에는 누문 명칭

19) 필암서원, 『筆巖書院誌』 卷之二, (필암서원, 1975), p.4.

20)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번역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拙稿, 「筆巖書院의 建築의 特性에 關한 研究」, (成大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p.225. 좌단.

의 유래를 알 수 있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을 함에 있어 ‘확연하다’ 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아울러 상량문에는 루(樓)를 중심으로 연못과 정자가 있는 풍경을 서술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주변 일부 지세에 대한 묘사도 곁들여져 있어 필암서원의 건축 변천과정을 추정하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또한 초친(抄薦) 김시찬(金時燾)이 영조 36년 경진(庚辰)년 2월에 확연루를 증건하면서 쓴 확연루기(廓然樓記)에는 역시 확연루의 명칭 유래에 관한 내용을 다시 적고 있으며, 건축에 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는 이 문루의 개수사실과 증건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서까래와 추녀 등 구체적인 건축 부재를 명시하면서 외관에 관한 서술도 적고 있다.

강수청은 현재는 없는 건물로 목산(木山) 이기경(李基敬)이 정조 원년(1776) 정유(丁酉)년 정월에 지은 강수청기에 따르면 창고 겸 유생들이 머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서원에 들기에는 어린 나이인 사람 18인을 뽑아 입원(入院)시켜 독서케 하였다고 한다.²¹⁾ 강수청 중수기는 고종 25년(1888) 무자(戊子)년에 김승집(金升集)이 쓴 것이다. 내용 후반부는 하서의 도학과 절의 등을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유학자의 자세에 대해 쓰고 있으며, 전반부에 건축물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보인다. 즉, 흠다리가 휘어져 서원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황량하게 된 서원을 묘사하고 있으며, 송영순(宋榮淳)이 침묘(寢廟)를 수선하여 인종이 하사한 목죽과 하서의 문집을 함께 모시니 이를 경장각(敬藏閣)이라 하며, 강당은 청절(淸節)이라 하고, 문루는 확연(廓然)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한 재사(齋舍)의 들보와 서까래에 단확(丹麴)을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²²⁾

묘정비(廟庭碑)는 고종 9년(1872) 을사(乙巳)년에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이 지었다. 여기에는 서원 설립과 이전에 대한 간략한 언급과 사액 시기, 필암(筆巖)의 명칭 연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하서의 고향인 고리(故里)에 바위가 깎은 듯이 서 있어 형상이 붓처럼 예리한데, 서원이 가까이 있다 하여 이로써 호(號)한 것이라 한다. 또한, 판각아래에 강당과 동재 및 서재의 명칭, 문루의 명칭등을 언급하고 있다.

사우중수상량문(祠宇重修上梁文)은 민병승(閔丙承)이 지었으나 건축적으로 특이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 글 앞에 묘정비의 내용이 실려 있으며, 이것은 고종 9년에 쓰여졌으므로, 사우중수상량문 역시 그 이후에 쓰여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래 필암서원이 현 위치에 자리잡았던 현종3년의 환경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당시의 죽전(竹田)이 상당히 줄었고 대신 장송(長松)이 많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김한익(金漢翼)이 쓴 사우 중수기가 있으나 특이한 건축적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⑦산양계발문(山仰契發文)/ 산양계안서(山仰契案序)/강안서(講案序)

산양계와 강회는 1953년에 결성되었으므로 비교적 근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역사적 중요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여기서 그 내용은 생략한다.

⑧장서각 상량문(藏書閣上樑文)/장서각기(藏書閣記)/장판각상량문(藏板閣上樑文)/장판각기(藏板閣記)/ 서원중수기(書院重修記)

장서각 상량문은 경무(庚戌)년(1970)에 쓰여졌다. 그러나 내용상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건물임을 알 수 있다. 건물을 짓는 방법으로 와전(瓦甎, 바닥에 까는 벽돌을 말함)을 두어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비바람을 막고 화재를 예방하였다고 한다.

장서각기(藏書閣記)는 중종(中宗), 정조(正祖) 두 임금 때 주자대전과 오경 등 백 권

21) 필암서원, 『筆巖書院誌』, 卷之二, (필암서원, 1975), p.22

22) 필암서원, 『筆巖書院誌』 卷之二, (필암서원, 1975), p.23

을 받았으며, 인종(仁宗)이 경전, 자사, 각 가문의 문헌 등 천 편을 소장하였으나, 기존의 장서각이 이를 다 수용할 수 없어 새로이 3칸 건물 4동을 지으면서 그 왼쪽에 전사청을 지었다고 한다.

장판각(藏板閣) 상량문(上樑文)에는 특별히 건축물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장판각을 세우게 된 이유로 유묵(遺墨)과 유문(遺文), 저서(著書) 등을 보관하기 위함이라 적고 있다. 장판각기(藏板閣記)에는 보관하고 있는 판본(板本)에 대한 설명과 장서각을 짓게 된 이유에 관해 적고 있는데 이는 장판각 상량문의 내용과 비슷하다. 뒷부분에 임자년(壬子年) 가을에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보인다. 하서의 도(道)를 따르기 위해, 바른 도리를 밝히기 위해 널링 책을 보급하려는 목적으로 판각하였으며 이를 보존하려 지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²³⁾ 서원 중수기(重修記)는 을묘(乙卯)4년 4월에 변시연이 쓴 것이다. 서원 전반 중수에 관한 내용이다.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다만 두 개의 우물을 뚫고, 다리를 놓았으며 길을 넓혔고 표척(標拓)을 세워 경계를 정리하였다.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였으며 서원의 모양새를 크게 개선하였다는 내용들이 보인다.

⑨ 춘추석채축문(春秋釋菜祝文)/서원이건봉안문(書院移建奉安文)/이건춘추상향축(移建春秋常享祝)/고암추배시고선생문(鼓巖追配時告先生文)/고암선생봉안문(鼓巖先生奉安文)/고암각축시고선생문(鼓巖各祝時告先生文)/고고암선생문(告鼓巖先生文)/고암선생예성제문(鼓巖先生禮成祭文)/사우중건후환안축(祠宇重建後還安祝)/순공효황후인산전정춘향고유문(純貢孝皇后因山前停春享告由文)/중수군고유문(重修軍告由文)

건축적 상황과 연관시켜 특기할 만한 내용이 언급된 문헌은 서원이건봉안문(書院移建奉安文)으로 이것은 우암 송시열이 쓴 글인데, 이전의 서원에서는 제사지낼 곳이 비좁고 경사져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사우중건후환안축(祠宇重建後還安祝)은 화동(華東) 김한익(金漢翼)이 쓴 것으로, 때는 신사(辛巳)년 7월로 적혀 있다. 사우를 중건하고 수치(修治)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기타 문헌들은 대부분 서원에 양자징을 배향하면서 적은 고유제문(告由祭文)들이 대부분이다.

(5) 권지삼(卷之三)

3권에서는 시(詩) 몇 수와 통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문서들 중 건축적 특징을 기록하고 있거나 특기할 만한 사회적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은 문헌들은 그 제목만을 표기하고 생략하였다.

① 청절당제영(淸節堂題詠)

모두 16수로 제봉(霽峯) 고경명(高敬命), 송강(松江) 정철(鄭澈) 등이 그 저자들이다. 이중 중봉(重峯) 조헌(趙憲)이 지은 청절당제영(淸節堂題詠)이라는 시(詩)를 보면, 계정(溪亭)이라는 짓구가 나오는데 이는 연못이 서원 내외에 있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²⁴⁾ 또한 서경(西峒) 유근(柳根)이 지은 청절당제영(淸節堂題詠)에도 사우에 대한 언급이 나오며, 추담(秋潭) 김우급(金友法)이 지은 청절당제영에는 사묘에 단청을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²⁵⁾

② 전교(傳敎)

신미년(辛未年) 8월이라 기록되어 있다. 상서학교(庠序學校)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다

23) 필암서원 『筆巖書院誌』 卷之二, (필암서원, 1975), p.30

24) “百年安宅欠經營 最愛河西保性情 今到祠前容一拜 春風如舊繞溪亭”. 필암서원, 『筆巖書院誌』 卷之三, (필암서원, 1975), p.1.

25) 필암서원, 『筆巖書院誌』 卷之三, (필암서원, 1975), p.1.

문듯하다. 승정 기원 83년(1710) 경인년(庚寅年) 9월에 한간(澣刊)된 것이다.

③ 서(書) 20수(首)

모두 20편이 실려 있고 1900년대 이후의 서(書)는 그 학문적 가치가 그리 높지 않으므로 생략하고 그 이전의 것만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 동춘송선생답이남계실지등서(同春宋先生答李南溪實之等書) : 현종 12년(1673)
- ▷ 동춘송선생여문곡금상공서(同春宋先生與文谷金相公書) : 현종 12년(1673)
- ▷ 동춘송선생답이남계실지등서(同春宋先生答李南溪實之等書) : 현종 13년(1674)
- ▷ 우암송선생답원유서(尤巖宋先生答院儒書) : 숙종 7년(1681)
- ▷ 병계윤선생답김진사경집서략(屏溪尹先生答金進士敬緝書略) : 영조 36년(1760)
- ▷ 매산홍선생답원유서(梅山洪先生答院儒書) : 순조 25년(1825)
- ▷ 우담원유서(又答院儒書) : 철종 원년(1850)
- ▷ 연재송선생답원유서(淵齋宋先生答院儒書) : 고종 39년(1902)²⁶⁾

이상의 글 가운데 동춘송선생여문곡금상공서에는 현 위치로 이견하기 전의 서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사우를 이견하기 위한 이유로 대지 자체가 경사져 있어 불안하고, 여름의 장마로 인하여 모든 실(室)이 무너지려 하기 때문에, 몇 마장(馬場) 떨어진 추산(秋山)아래, 청계(淸溪) 위 죽림(竹林) 가운데로 옮겨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²⁷⁾ 또한 우동사(祐東祠)의 명칭에 대하여 1900년대 이후의 서(書)에서 논란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④ 완문(完文) 5건(件)

완문은 모두 다섯 건이 있으며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 호포전수납원중사완문(戶布錢收納院中事完文) : 고종 19년(1882)
- ▷ 원중진결이록도청사완문(院中陳結移錄都廳事完文) : 을축년(乙丑年)(1889)
- ▷ 치도사완문(治道事完文) : 임진년(壬辰年)(1892)
- ▷ 촌민잡역물시사완문(村民雜役勿施事完文) : 임인년(壬寅年)(1902)
- ▷ 결가사완문(結價事完文) : 광무(光武) 6년(1902)

⑤ 일향계약(一鄉契約)

이 글은 향계(鄉契)의 규약에 관하여 언급한 글로 끝부분에 당시 회원이었던 27명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시기는 신해년(辛亥年) 4월 5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고, 다만, 회원 중 김천민(金天民)은 영조 20년(1744)을 전후하여 원임으로 있었던 인물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은 1731년의 기록일 가능성도 있다. 이 글은 본문과 8조의 조약(條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⑥ 호남유생통대학제유문(湖南儒生通太學諸儒門)/태학회통청향소청문(太學回通請享疏廳文)입의(立議)/고목(告目)3/품목(稟目)25/부사하첩(府使下帖)3/문보(文報)14

여기서 특히 언급할만한 부분이 있다면, 절목(節目)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칙, 예를 들면 춘추 향사와 관련하여 원생(院生)이 내는 돈과 노비(奴婢)가 제공하는 곡물이외에는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모두 12항의 절목을 제시하고 있다. 서책질(書冊秩)에는 소유하고 있는 서책의 이름과 수량을 표기하고 있다. 제기질(祭器秩), 재복질(齋服秩), 책판질(冊版秩)에서도 각각의 이름과 수량을 표기하였으

26) 원칙적으로 건양(建陽) 연호를 쓴 것이 1896년이므로 고종의 재위기간은 이 때 끝나게 되나 원문의 기록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27) 필암서원, 『筆巖書院誌』 卷之三, (필암서원, 1975), p.2.

며, 고서원평(古書院坪), 해촌평(海村坪), 남일평(南一坪) 등 각 전답에서 나오는 곡물의 양을 두(斗), 승(升) 등의 단위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원생 30인은 매 춘추향사 때마다 각 1냥씩을 납부하여야 하였으며, 보노(保奴) 30인은 쌀 3斗를 납부하여야 했다. 노질(奴秩), 비질(婢秩), 도노질(逃奴秩), 도비질(逃婢秩)마다 각각의 명단이 기입되어 있다. 품목 이후의 기록은 대부분 철종(哲宗)과 고종(高宗)시기의 기록이 거의 대부분이다.

⑦ 이서원중수사상본졸문(以書院重修事上本倣文)

이 글은 고종 을묘년(乙卯年)(1879) 1월에 쓰여졌는데 건축과 관계된 내용을 예로 들면 원내 건물을 지칭하면서 빗물이 새고 있으며 서까래가 썩고 들보가 무너지니 수리하는 일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²⁸⁾

⑧ 품고(稟告)5/정유(情由)/품보(稟報)5/독제(督題)/원정(冤情)5/소지(所志)/품상(稟狀)/훈금(訓今)/단자(單子)

여기 언급된 문헌들의 기록 연대 역시 거의 대부분이 고종 이후의 일을 기록한 것들이다. 다만 독제(督題)편에 실린 부분을 잠시 옮기면, 김인후의 후손 중 한 명이 필암서원의 안산(案山)에 선친의 묘자리를 선정하여 안장하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간략한 주변 지형도와 약도를 병기하였다. 또한 고종 임인년(壬寅年)(고종 6년, 1902)의 기록에는 원촌(院村)에 관한 기록이 보이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원촌은 서일면이라 하였다.²⁹⁾

뒤이은 다른 기록에는 다시 원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원(院)에 접한 마을을 원촌이라 한다는 구절이 보인다. 또 정미년(丁未年)(1907)의 기록에는 원촌민의 호수까지 언급하고 있는 등, 계속해서 관련된 기록이 나오는 바 서원을 둘러싼 농촌 취락 구조에 관하여 일고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⑨ 사산사다사간통원유문(泗山祠多士簡通院儒文)/성토이인이각종문(聲討李仁李覺種文)/답통훈몽제유회소문(答通訓蒙齊儒會所文)/하서선생묘소금광방지사고창향교(河西先生墓所金壙防止事高敞鄉校)/회통(會通)³⁰⁾/제회봉안공圭容文(祭晦奉安公圭容文)/울곡선생사당보존사통문(栗谷先生祠堂保存事通文)/성토이숙종등여의원문(聲討李淑鍾等女議員文)/박일본정문(駁日本政文)

이상의 문서는 향교간의 서(書)인 유문(儒文)과 회통(會通)으로 일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글로써 거의 대부분이 고종 이후의 기록으로 역사적 중요성이 높지 않아 여기서는 제목만을 게재하고 내용은 생략하였다.

(6) 권지사(卷之四)

① 원장선생안(院長先生案)

역대 필암서원의 원장선생(院長先生)을 열거하였다. 여기에 열거된 내용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8) 필암서원, 『筆巖書院誌』 卷之三, (필암서원, 1975), p.20.

29) 필암서원, 『筆巖書院誌』 卷之三 (필암서원, 1975), p.20.

30) 여기에는 울산, 광양, 영일 향교 등 3개 향교의 회통이 포함되어 있다.

(표 1) 필암서원 원장선생안

시기	이름	출생지	약력	자(字)	호(號)	시호(諡號)
현종 7년 (丙午, 1666)	송준길(宋浚吉) (1606~1672)	은진(恩津)	참찬(參贊)	명보(明甫)	동춘당(洞春堂)	문경(文正)
영조 27년 (辛未, 1751)	유척기(兪拓基) (1691~1767)	기계(杞溪)	문영상(文穎相)	전보(展甫)	지수재(知守齋)	문익(文翼)
영조 38년 (壬午, 1762)	김원행(金元行) (1702~1772)	안동(安東)	참봉(參奉)	백춘(伯春)	미호(美湖)	문원(文元)
정조 6년 (壬寅, 1782)	김이안(金履安) (1722~1791)	안동(安東)	진선(進善)	원례(元禮)	삼산재(三山齋)	문헌(文獻)
정조 12년 (戊申, 1788)	김종수(金鍾秀) (1728~1799)	청풍(淸風)	문영상(文穎相)	정부(定夫)	몽오(夢梧) 진술(眞率) 술옹(率翁)	문충(文忠)
정조 14년 (庚戌, 1790)	심환지(沈煥之)	청송(靑松)	문우상(文右相)	취원(歸遠)	만포(晩圃)	문충(文忠)
현종 2년 (丙申, 1836)	홍직필(洪直弼) (1776~1852)	남양(南陽)	대사헌(大司憲)	백응(伯應)	백산(梅山)	문경(文敬)
건양 1년 (丙申, 1896)	송병선(宋秉璿) (1836~1905)	은진(恩津)	제주(祭酒)	화옥(華玉)	연재(淵齋)	문충(文忠)
계해(癸亥)	민병승(閔丙承)	어흥(驪興)	문이참(文吏參)	.	단운(丹雲)	.

<표 1> 필암서원 원장선생안

② 집강안(執綱案)

집강안의 기록은 필암서원 내에서의 직무 역임에 관한 기록으로 현종(顯宗) 경술년(庚戌년)(현종 11년, 1670) 8월 27일의 기록부터 시작되고 있다. 최초의 원장선생³¹⁾이었던 송준길은 김인후와 함께 문묘에 배향된 해동18현(海東十八賢)의 한 사람이다. 당시 서인(西人)에 속하였던 송준길은 인조(仁祖) 2년(1624) 진사가 되고 세마(洗馬)로 임명되었으나 당쟁의 소용돌이속에 학문에 뜻을 두어 역 20여년간 학문에 전념하다가 효종(孝宗)즉위 후 재기용되어 서인의 집권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현종 즉위 후 보양관(輔養官)의 직위에 머물렀으나 남인의 상소로 사퇴하게 된다. 이후 다시 좌참찬으로 재기용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사건이 현종 6년(1665)에 일어났고 송준길이 필암서원의 원장선생으로 위임된 해가 바로 다음 해인 1666년이라는 것이다. 이는 당시 장성 지방 사림의 정치적, 학문적 경향이 송준길과 유사하였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사실이며 동시에 이 기록은 당시 중앙 정계에서의 필암서원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

31) 필암서원은 1590년에 창건되었으나 현재와 같이 동서재와 기타 전각을 포함한 모든 건물들이 예체적 형식을 갖추고 창건된 것은 아니었으며 초창기의 서원 건축 형식과 같이 향사의 기능만을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두 차례의 이건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현 위치에 이견하게 된 1672년을 전후하여 비로소 필암서원이 교육적 기능까지 담아 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원내에서 직무를 분담하고 정식으로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 이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았었음을 알게 해준다.

다음 기록은 현종 임자년(壬子年)(현종 13년, 1672)으로 이 해에 필암서원은 현 위치로 이견된다. 이 해에도 역시 원장은 송준길이었으며 진신장의(搢紳掌議)는 당시 장성부사(長城府使)였던 송시도(宋時燾)였다. 다음 기록은 숙종(肅宗) 무자년(戊子年)(숙종 34년, 1708)으로 이어지는데 이후 기록 간격은 일정하지 않으며, 보통 1년 단위로 기록되어 있다. 기록상의 오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숙종 정유년(丁酉年)(숙종 43년, 1717)부터 영조(英祖) 임술년(壬戌年)(영조 18년, 1742)사이에는 원장없이 약 25년간의 공백상태가 보인다. 또한 원장 직위의 기록은 있으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송준길 이후 약 40여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의는 최소한 2~3명씩 언급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에 의해 원내 건물의 중수나 보수 작업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기록은 17세기 후반 이후 장성 지방 사림의 판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써 여기에 원임(院任)으로 등록된 성씨의 가문은 상당한 세력을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③ 문계안(文契案)

문계안은 강관(講官), 강원(講院), 조약(條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헌 작성 시기는 명확한 기록이 없이 판단하기 힘들다. 강관은 김형우(金亨祐)의 5명, 강원은 박행중(朴行重)의 62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조약은 강관에 대한 내용으로 모임 시간과 불참시의 규정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의 원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강관강원매월삭망회우필암강당분향후인위설강사
(講官講員每月朔望會于筆巖講堂焚香後因爲說講事)
- 강관혹유고미참즉정단회소이무연불참즉후백지삼장비납사
(講官或有故未參則呈單會所而無緣不參則厚白紙三丈備納事)
- 강원각수기력위배강사 (講員各隨其力爲背講事)
- 제술지원시부의의즉칠수론책즉삼수제술(製述之員時賦義疑則七首論策則三首製述)
- 음석불통자갑십개사(音釋不通者甲十介事)
- 음석수통이문불통자이조려행사
(音釋雖通而文義不通者以粗旅行事)
- 연삼순통자후백지오장상합련삼조자십개사
(連三純通者厚白紙五丈賞給連三粗者十介事)
- 제술기수약미비일수즉후백지십장속납
(製述記數若未備一首則厚白紙十丈贖納)
- 강원무연불참즉삭적사
(講員無緣不參則削籍事)
- 산좌실의회화쟁경자갑오개사
(散坐失儀喧譁爭競者甲五介事)
- 고강시색장급직일행지강원사
(考講時色掌及直日行知講員事)
- 설강후만도자벌지오장비납사
(設講後晚到者罰紙五丈備納事)
- 경서즉불하일편잡문즉불하이십장이불비비수즉갑칠개사
(經書則不下一篇雜文則不下二十丈而不備此數則甲七介事)

④ 원적(院籍)

원적은 모두 4개가 실려 있다. 여기에는 기록 당시의 원적에 올라 있던 사람들의 이름과 생년(生年)등을 기록하고 있다. 각각의 원적을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원적정리표(필암서원, 『筆巖書院誌』 卷之四, (필암서원, 1975))

시기 직책	숙종(肅宗) 34년 (1708)	숙종(肅宗) 43년 (1717)	영조(英祖) 18년 (1742)	영조(英祖) 22년 (1746)
색장(色掌)	2	2	2	2
생원(生員)	7	3	2	1
유학(幼學)	367	297	304	301
장의(掌議)	1	1	1	1
직장(直長)	1	1		
진사(進士)				1
참봉(參奉)		1		
찰방(察訪)	3			
첨지(僉知)				1
현감(縣監)				
계	382명	305명	309명	307명

(7) 권지오(卷之五)-봉심록(奉審錄)

이 문헌은 정확한 편찬 시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문헌상에 기재된 인물들의 이름과 직책 등으로 살펴보면 역시 비교적 근래에 기록된 문서로 판단된다. 앞부분에서 언급되는 직책과 관련하여 관찰사(觀察使), 현감(縣監) 등이 나오나 첫부분에서는 언급될 뿐 뒷부분은 유학(幼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시기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진사(進士), 생원(生員), 신급제(新及第), 찰방(察訪)을 비롯 군수(郡守)등의 명칭이 계속되고 있으며 약 1520여명의 인명과 출생지 및 거주지 등을 기록하고 있다.

(8) 권지육(卷之六)-참제록(參祭錄)

참제록은 춘추향사에 제관(祭官)으로 참여한 사람에 관한 기록으로 숙종(肅宗) 경인년(庚寅年) (숙종 36년, 1719) 2월 20일 춘향(春享) 이전의 기록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이전의 기록은 소실되었다고 한다. 이 문헌은 이전의 문서를 다시 쓰면서 글자가 보이지 않는 부분은 결(缺)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숙종 갑오년(甲午年)(숙종 40년, 1714)에서 일단락되며 고종(高宗) 경자년(庚子年)(고종 4년, 1900) 2월 25일 춘향으로 이어진다. 권지칠(卷之七)의 기록은 제관들에 관한 기록이 비교적 상세한 편이나 고종 이전의 기록에는 설명이 거의 없으며, 고종 이후의 기록에서부터 비로소 향사에서의 직책과 출생지, 거주지에 대한 사항이 보이고 있다. 이 기록은 계미년(癸未年)(1943)까지 이어지며 다음 권에서 계속되고 있다.

(9) 권지칠(卷之七)-참제록(參祭錄)

권지육(卷之六)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신묘년(辛卯年)(1951) 9월 24일 추향(秋享)부터 을묘년(乙卯年)(1975) 2월 20일 정축(丁丑) 춘향(春享)의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다. 향사를 주재하는 헌관(獻官) 등 제관들의 명칭과 이름을 적고 그 아래에 그 사람의 출생지와 직책, 거주지 등을 표기하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제관들의 명칭을 옮겨보면, 헌

관을 비롯, 진설(陳設), 집례(集禮), 축(祝), 봉향(奉享), 봉로(奉爐), 봉작(奉爵), 장의(掌議), 색장(色掌), 별유사(別有司), 당장(堂掌), 학생(學生) 등이다.

(10) 권지팔(卷之八)-강안(講案)

강안은 계사년(癸巳年)(1953) 2월 23일 춘향(春享)이후 을묘년(乙卯年)(1975) 2월 22일 춘향(春享)까지의 기록으로 필암서원에서 강의할 과목과 담당자에 관한 것이다. 가의 과목을 살펴보면 논어(論語), 맹자(孟子), 대학(大學),中庸(中庸), 서경(書經), 역(易), 대학(大學), 소학(小學), 백록동규(白鹿洞規), 하서집(河書集), 서명(西銘), 인설(仁說) 등이 있다. 또한 같은 과목도 장(章)에 따라 담당자를 구분한 것도 있다. 과목과 담당자의 수는 일정치 않으며, 기록은 매 향사(享祀)마다 바뀌고 있다.

(11) 권지구(卷之九)

산양계안과 부성안 모두 역사적 중요도가 높지 않으므로 그 내용은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① 산양계안(山仰契案)

산양계는 1953년에 결성되었으며 여기에는 구성원 1069명의 자(字)와 생년(生年), 출생지와 거주지 등이 기록되어 있다.

② 부성안(扶成案)

여기에는 필암서원과 관련된 기관 3곳과 120명의 이름, 직책, 생년, 출신지를 표기하였다.

(12) 권지십(卷之十)

① 유사록(有司錄)

필암서원 내 건물의 이건(移建), 중수(重修), 중건(重建)에 관한 기록이다. 제일 먼저 현종(顯宗) 임자년(壬子年)(1672) 3월 27일에 필암서원을 이건(移建)할 때와 영조(英祖) 20년(1744)에 문루인 학연루를 중수할 때, 영조 28년(1752)에 학연루를 중건할 때, 고종 24년(1887)에 전반적인 중수를 단행하였을 때, 1941년에 사우(祠宇)를 중건할 때 등의 유사록(有司錄)이 기록되어 있다. 현종 때의 기록에 보이는 인물들 중 이실지(李實之)³²는 당시 유림장의(儒林掌議)를 맡고 있었으며 필암서원과 관련된 기타 문헌상에서 필암서원의 이건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인물로 나타난다.

이 기록들에서 확인되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필암서원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이다. 필암서원의 중수와 이건 사실을 기록하면서 나타나는 장의(掌議)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먼저 이건당시 진신장의(進紳掌議)를 맡았던 송시도(宋時燾)는 당시의 장성 부사(府使)이다. 1887년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원이(院貳) 이헌직(李憲植)은 관찰사(觀察使)였으며 진신장의의 김승집(金升集)은 부사(府使)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이것은 필암서원을 중심으로한 장성 지방의 사림이 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이 시기가 전국적으로 대원군에 의해 서원 철폐령이 내려져 47개의 서원만이 남았던 19세기 후반의 기록이었음을 감안할 때, 지방뿐만 아니라 중앙 정계에서도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32) 김인후의 외종손으로 필암서원의 이건 당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필암서원, 『河西全集』 上卷, (필암서원, 1993), p.21

② 헌성록(獻誠錄)

헌성록은 고종(高宗) 정해년(丁亥年)(1881)과 신사년(辛巳年)(1914)의 기록으로 필암서원에 재정적 도움을 준 유림들과 그 액수를 기록한 것이다. 고종 때의 기록에는 호남 각 지방의 이름이 보이는데 모두 52개 지역 유림이 기록되어 있다. 재정적 규모에 따라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며 일백냥(壹百兩) 이상으로 광주(光州), 남원(南原), 나주(羅州), 순천(順天), 영광(靈光), 전주(全州) 유림 등이 기록되어 있다. 신사년의 기록은 사우 중건시의 기록으로 기부자의 명단과 간단한 약력, 그리고 기부 금액이 기록되어 있으며 모두 22명과 두 문중(門中)이 기록되어 있다.

③ 산양계표성록(山仰契表誠錄)

산양계 구성원들의 곡물 기부 내역을 석(石), 두(斗), 승(升)의 단위로 기록하였으며 모두 110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나 근래의 기록으로 역사적 중요성이 그리 높지 않아 생략한다.

④ 부성안표성록(扶成案表誠錄)

여기에는 춘추(春秋) 제향(祭享)에 참석한 원외(院外) 사람들의 기부 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처음 기록이 신묘년(辛卯年)(1951)의 것으로 필암서원지가 발간되기 전 해인 갑인년(甲寅年)(1974)까지로 되어 있다.

(13) 권지십일(卷之十一)

① 서재유안(西齋儒案)

서재유안에는 안(案)에 등록되어 있는 유학(幼學)들의 이름과 간단한 약력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의 기록은 헌종(憲宗) 병오년(丙午年)(헌종 12년, 1846) 1월의 것으로 당시 집강(執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② 노비보(奴婢譜)

노비보에는 노비(奴婢)의 매매와 관련된 사항과 그 노비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의 성별 및 생사(生死) 등의 기록되어 있다. 또한 노비간의 혼인관계가 상세히 적혀 있으며 공노비(公奴婢)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중간에 결(缺)이 두번 있는데 첫번째 결의 끝에 을축(乙丑年)으로 기록되어 있다. 두번째 기록이 끝나는 부분에는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세번째 부분의 말미에 병인(丙寅年)의 기록이 있는데 서재유안의 기록으로 보아 마지막 기록연도는 1866년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이 문헌에서는 남노(男奴)는 14口, 여비(女婢)는 17구로 되어 있다.

처음 부분과는 달리 중간에 이르면 노비간의 혼인에 대한 기록이 많아지는데 중간중간 노비와 양인(良人)간의 혼인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외거(外擧)노비의 흔적으로 보이는 기록이 보이는데 ‘전남 무안³³⁾과 기산(岐山) 등에 거(居)하고 있다.’³⁴⁾는 기록이 그 예이다. 중간에 특기할 만한 내용으로는 두번째 결이 나타나는 부분에 ‘임신년(壬申年) 봄에 누문(樓門)을 중창(重創)하면서 재곡(財穀)이 부족하여 원(院)의 회의를 거쳐 남자 노비를 60전(錢)에 매매한다.’³⁵⁾는 기록 등 서원의 중건 및 보수 과정에서 일부 노비를 일정 금액을 받고 매매하였다는 기록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일정 금액을 받고 ‘영원히 양인(良人)으로 보낸다(放).’는 기록도 보인다.³⁶⁾

33) ‘女婢 英愛 年 甲辰 夫 金彭金 居 務安 社會’, <奴婢譜>, p.8

34) ‘女婢 阿望介 故 夫 斗應骨 金 居 岐山’, <奴婢譜>, p.9.

35) ‘壬申春樓門重創時以財穀不足故鄉中完義着署後許贖此奴錢六十兩棒用’, <奴婢譜>, p.5.

36) ‘女 日丹 壬戌二月十六日 祭享罷齋後 藏書閣成造債錢許多 故一相介二所生婢日丹身其子女三口併二棒錢六十兩永

③ 보노질(保奴秩)

이 문헌에서는 노비의 자녀관계를 표기하고 노비의 건강 정도를 장(壯), 강(強), 약(弱)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주된 임무와 관련하여 일부 비(婢)의 이름 하단에 사환(使喚), 식모(食母) 등의 표기가 보이며 경제적 상태에 관하여서도 빈전(貧錢)과 무뢰(無賴)등으로 표기하였다. 보노질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앞의 것에는 모두 50명이 기록되어 있으나 2명은 고(故)로 표기되어 있으며, 나머지 48명 중 장(壯)이 29명, 약(弱)이 19명으로 되어 있다. 뒤의 것에는 41명으로 되어 있다.

④ 노비안(奴婢案)

이 문헌은 헌종(憲宗) 병오년(丙午年)(헌종 12년, 1846) 11월에 기록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문헌에는 모두 36명의 이름이 성(性)과 함께 표기되어 있다.

⑤ 토지표시(土地表示)

세 페이지에 걸쳐 소유 전답(田畓)과 임야(林野)의 위치, 면적, 등급, 소유자, 직영 여부 등이 표기되어 있다.

(14) 권지십이(卷之十二)

① 장서목록(藏書目錄)

장서목록에 포함된 문헌은 다음과 같다.

가산서원지(佳山書院誌), 간동유고(澗東遺稿), 간암유고(艮菴遺誥), 간재예설(艮齋禮說), 갈파일고(葛坡逸稿), 경신재유고(敬愼齋遺稿), 고문진보전집(古文眞寶前集), 고문진보후집(古文眞寶後集), 고산서원지(高山書院誌), 고운선생계원필경경학대장(孤雲先生桂苑筆耕經學隊仗), 과암선생문집(果菴先生文集), 광산김씨보첩(光山金氏寶帖), 광산김씨파보(光山金氏波譜), 광산김씨효열록(光山金氏孝烈錄), 구신재유고(濯新齋遺稿), 국로추사(菊露秋寫), 국역송강집(國譯宋江集), 국전유고(菊田遺稿), 귀성부사양공실기(龜城府使梁公實記), 근재유고(勤齋遺稿), 금강사고(錦岡私稿), 급우재속집(及愚齋續集), 급우재집(及愚齋集), 기옹유고(基翁遺稿), 난곡선생연보(蘭谷先生年譜), 난석집(蘭石集), 남계원지(濼溪院誌), 남애집(南崖集), 남전유고(藍田遺稿), 남죽유고(南竹遺稿), 노당실기(露堂實紀), 노랄수사(老辣隨辭), 노비보(奴婢譜), 노비안(奴婢案), 노성궐리사신안지(魯城闕里祠新安誌), 노성궐리지(魯城闕里誌), 녹천유고(鹿川遺稿), 담옹풍아(湛翁風雅), 대성단실록(大成壇實錄), 도계원지(道溪院誌), 도암문집(陶菴文集), 동애선생실기(桐先生實紀), 동진사지(東津祠誌), 동춘당선생집(同春堂先生集), 만산유고(晩山遺稿), 명심보감(明心寶鑑), 모암실기(帽巖實紀), 무여재유고(無如齋遺稿), 묵재실고(默齋實稿), 문계안(文契案), 문원(文苑), 문헌보감(文獻寶鑑), 민산음사지(繁山吟社誌), 박의(博議), 백련초해(百聯抄解), 백재유고(白齋遺稿), 백파사고(白坡私稿), 백현서원지(栢峴書院誌), 병사양공실기(兵使梁公實紀), 병암집(炳菴集), 병천사지(秉天祠誌), 복양재실기(復陽齋實紀), 봉심록(奉審錄), 북창고옥양선생집(北窓古玉兩先生集), 비천집(飛泉集), 사계전서(沙溪全書), 사문류취(事文類聚), 사암선생문집(思菴先生文集), 사요취선(史要聚選), 사우당집(四友堂集), 사유당유고(四留堂遺稿), 삼도실기(三道實記), 삼선생요어(三先生要語), 삼호재집(三戶齋集), 상용축진설도(常用祝陳說圖), 서은실기(瑞隱實記), 서재유안(西齋儒案), 석농연보(石農年譜), 석담금사양세실기(石潭錦沙兩世實紀), 석애집(石崖集), 석전집(石田集), 석천집(石川集), 석헌문집(石軒文集), 선암선생실기(仙菴先生實記), 설정선생조천일기(雪汀先生朝天日記), 설정집(雪汀集), 세한재유고(歲寒齋遺稿), 소송유고(小松遺稿), 소쇄원사실(소쇄園

永放良(印), 〈奴婢譜〉, p.11.

事實), 소암유고(紹巖遺稿), 소은유고(素隱遺稿), 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 송사유고(宋史遺稿), 송서습유(宋書拾遺), 송석유고(松石遺稿), 송암유고(松菴遺稿), 송은유고(松隱遺稿), 송자대전(宋字大全), 송재실기(松齋實紀), 송재유묵(松齋遺墨), 수분당유고(守分堂遺稿), 수원백씨세고실기(水原白氏世稿實紀), 신독재전서(慎獨齋全書), 신임토역소(辛壬討逆疏), 신평유고(莘圃遺稿), 심재집(心齋集), 아송(雅頌), 야수실기(野叟實記), 양산유고(陽山遺稿), 여면담(如面談), 여산송씨열효록(礪山宋氏烈孝錄), 역암집(櫟菴集), 연성충정공연보(延城忠靖公年譜), 연이선적약고(延李先蹟略稿), 연채당유고(聯棧堂遺稿), 영양재유고(穎陽齋遺稿), 예기(禮記), 오경백편(五經百篇), 오륜가(五倫歌), 오재집(寤齋集), 오현수언(五賢粹言), 옥산집(玉山集), 옥서실기(玉西實記), 우모정실기(寓慕亭實紀), 우암집(尤菴集), 운곡집(雲谷集), 원관헌집(遠觀軒集), 원산초고(元山草考), 원장선생안(院長先生案), 원적(院籍), 월계집(月溪集), 월암서원집(月巖書院集), 유모록(孺慕錄), 유충사지(유충祠誌), 유학개론(儒學概論), 유헌집(游軒集), 육유당일기(六有堂日記), 은봉속집(隱峯續集), 은봉전서(隱峯全書), 이조서원문고목록(李朝書院文庫目錄), 인조대왕어제(仁祖大王御製), 일두선생속집(一蠹先生續集), 일재유집(一齋遺集), 자하집(紫霞集), 장담세적(長潭世蹟), 장성교지(長城校誌), 장성륜강록(長城倫綱錄), 장성읍지(長城邑誌), 장성향교지(長城鄉校誌), 장행통고(壯行通考), 장헌유고(壯軒遺稿), 전남도지(全南道誌), 전남청금안(全南靑襟案), 전재연보(全齋年譜), 절당유고(節堂遺稿), 절효공실기(節孝公實記), 정재실기(貞齋實紀), 제하휘록(제하彙錄), 조선사(朝鮮史), 주은세고(酒隱世稿),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자대전(朱子大全) 구판(舊版), 주자어류(朱子語類), 죽산안씨세고(竹山安氏世稿), 죽천사지(竹川祠誌), 죽천선생우계기초본(竹川先生遇溪記草本), 죽천유고(竹川遺稿), 죽천유묵(竹川遺墨), 죽천집(竹川集), 죽헌유고(竹軒遺稿), 직재유고(直齋遺稿), 집강안(執綱案), 집성사지(集成祠誌), 참제록(參祭錄), 천미록(闡美錄), 청강유고(晴岡遺稿), 청고집(靑阜集), 초려전집(草廬全集), 추담선생문집(秋潭先生文集), 춘우정문고(春雨亭文稿), 춘파유고(春坡遺稿), 탁와집(琢窩集), 택재유고(澤齋遺稿), 통문초(通文抄), 파강유고(巴江遺稿), 표곡실기(豹谷實記), 필암심원록(筆巖尋院錄), 하곡유필(霞谷遺筆), 하서선생문집(河西先生文集), 하서선생언행록(河西先生言行錄), 하서선생유묵(河西先生遺墨), 한감강록(韓鑑綱錄), 한음집(漢陰集), 해망사지(海望祠誌), 해운유고(海雲遺稿), 행원유고(杏園遺稿), 행해척득(杏海尺牘), 현주사지(玄洲祠誌), 홍무정운(洪武正韻), 화동유고(華東遺稿), 화루집(華樓集), 황명세설(皇明世說), 회봉유고(晦峯遺稿), 회봉유고부록(晦峯遺稿附錄), 후석유고(後石遺稿), 후재유고(後齋遺稿), 휘어(彙語), 흠재문고(欽齋文藁)

이상에 언급된 각각의 문헌은 모두 저자와 편찬 시기 권(卷) 수(數) 및 책(冊) 수, 자수(字數) 및 문헌의 재질, 즉 목판(木板)인지 한장(漢裝)인지의 여부 등도 병기되고 있고 따라서 시기 판단이 용이하므로 서지학(書誌學) 관련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② 물품목록(物品目錄)

물품목록에는 원도(院圖) 및 원장(院章) 등 필암서원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물품의 수량을 언급하고 있다.

(15) 구발(舊跋)

여기서는 서두에 필암서원의 건립과 김인후의 학문과 도덕을 기리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중간 부분에는 필암서원의 건립 연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필암서원지에 기록된 문헌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되 기타 내용은 생략하였다.

Ⅲ. 결 론

이상으로 필암서원지의 내용을 통하여 문헌이 제시하는 근거를 가지고 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필암서원 등 실제적인 대상물에 대한 사료적 접근을 시도하여 보았다. 물론 문헌이 완벽하게 옮겨졌다고 자신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본 논문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역사를 판단하는 객관적 시각에서 고문헌을 통한 사회적 상황의 고찰내지 건축적 유구의 추적을 시도해 보았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두 번째로 서원지의 구성과 내용을 부족하나마 자료화함으로써 이후 다른 서원 연구와 동시대 혹은 동지역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본문중에서 생략된 부분과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한해서 추후에 연구를 진행할 예지이다. 특히 원촌에 관련된 부분과 노비보에 관한 부분, 그리고 필암서원에서 외거 노비등을 통하여 장거리에 떨어져 있는 농장과 어장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새로이 발견된 부분도 없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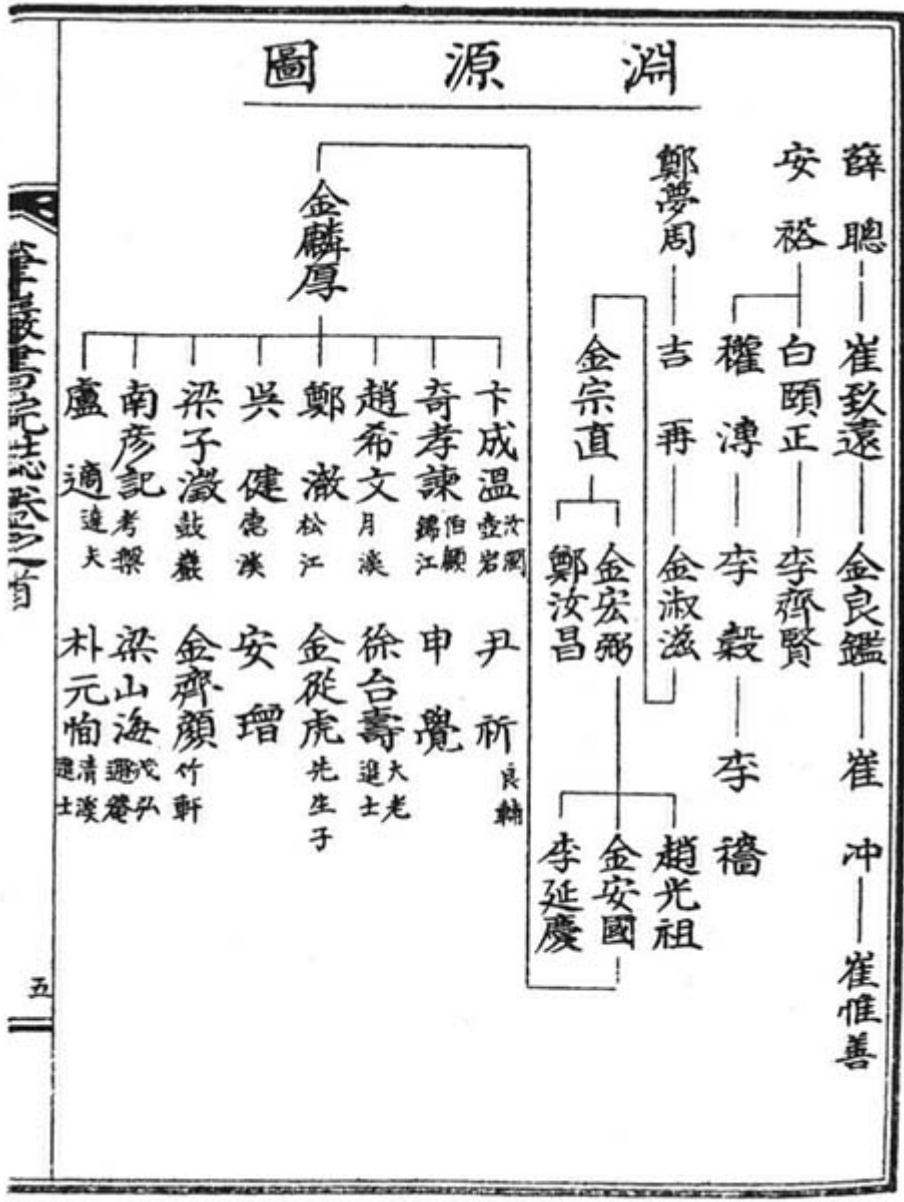
참 고 문 헌

1. 내 고장 전통 가꾸기 장성군편찬위원회, 「내 고장 전통 가꾸기」, 장성군,1981
2. 송정현, 「筆巖書院研究」, 「역사학 연구X」, 전남대,1981
3. 유교 사전편찬위원회, 「유교대사전(儒敎大事典)」, 전영사.1990
4. 이용범, 「朝鮮時代 書院建築의 配置形式과 그 外部空間講成에 關한 研究」,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 논문,1982
5. 조상순, 「筆巖書院의 建築的 特性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1998
6. 필암서원, 「河西全集」, 필암서원, 1993
7. 한국사사료연구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CD-ROM」



필암서원 현황 배치도(필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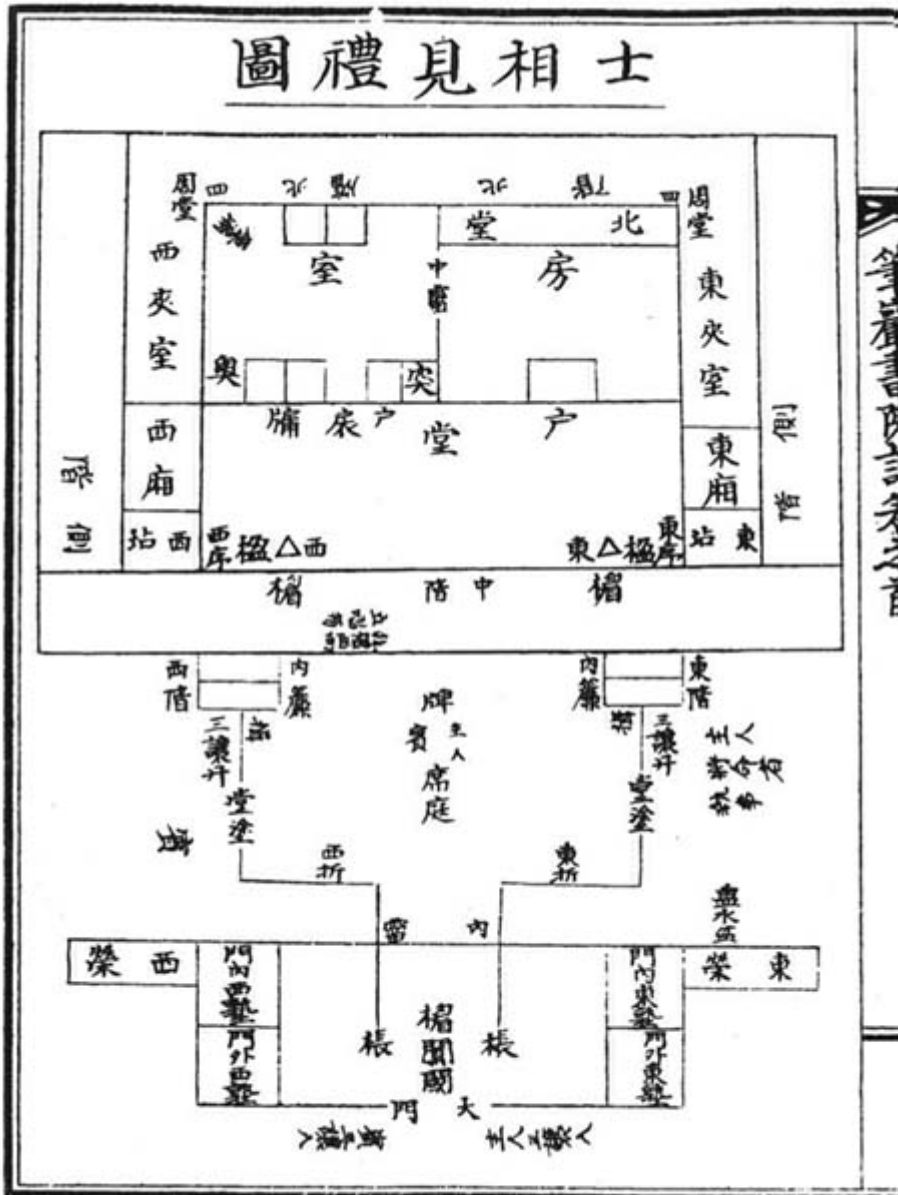
필암서원 현황 배치도(필자작성)



연원도(淵源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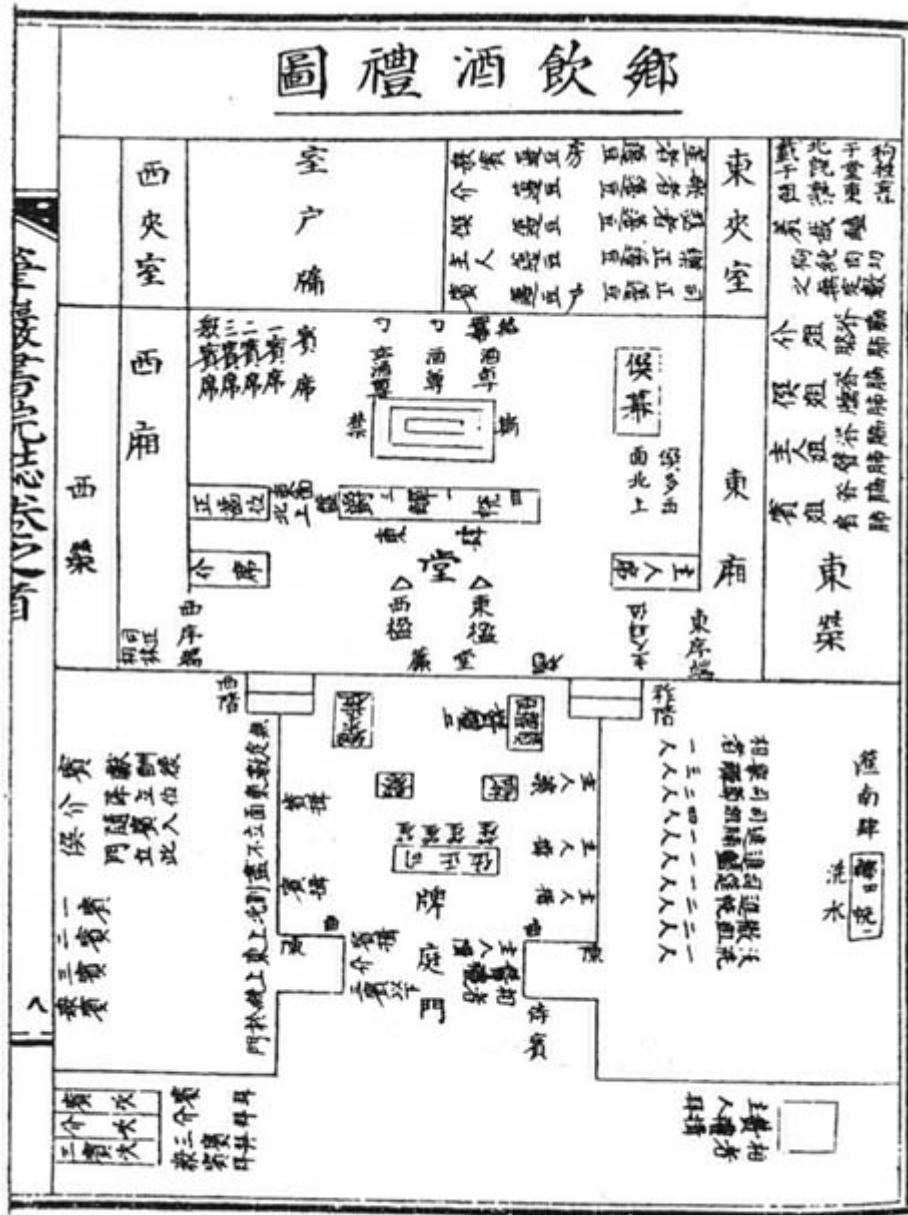
연원도(淵源圖)

士相見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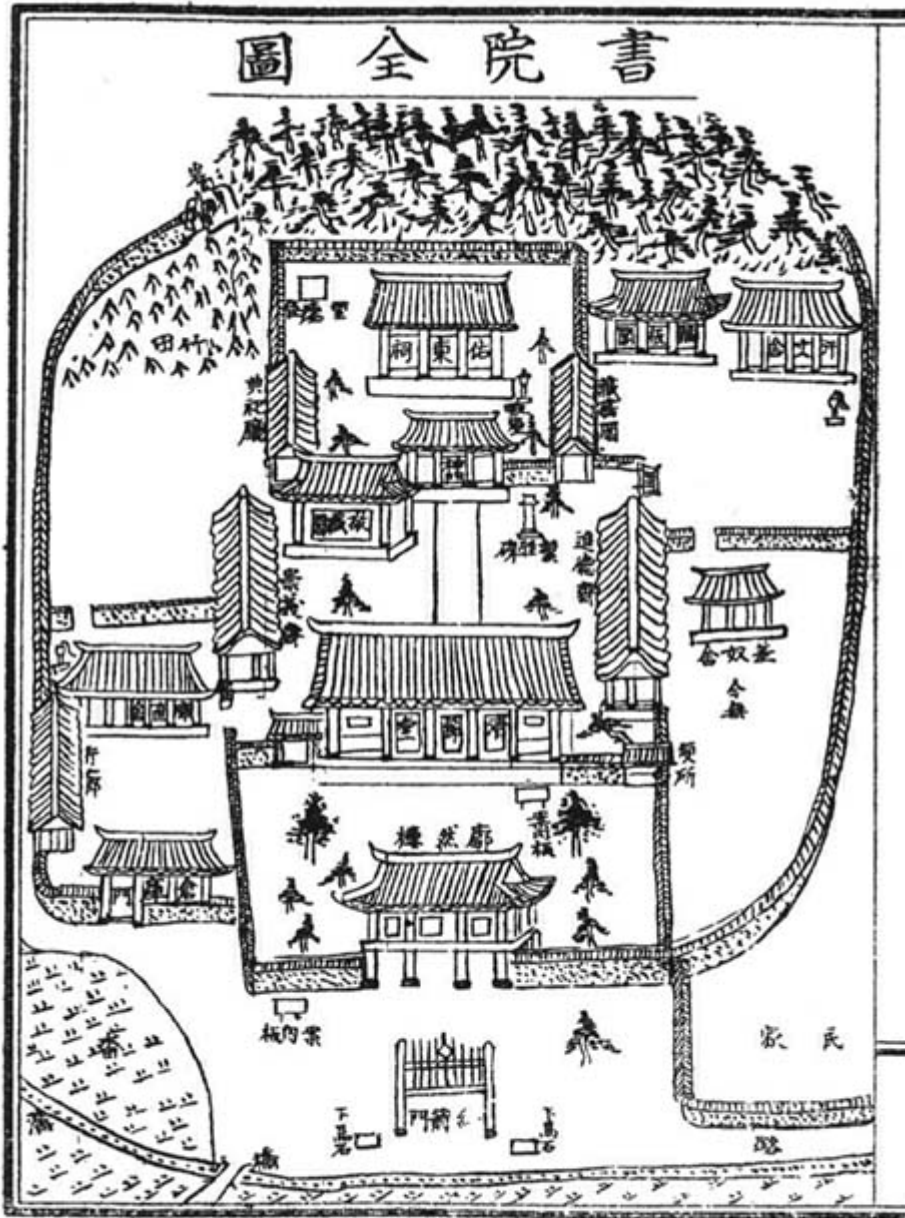
사상견례도(士相見禮圖)

사상견례도(士相見禮圖)



향음주례도(鄉飲酒禮圖)

향음주례도(鄉飲酒禮圖)



서원전도(書院全圖)

서원전도(書院全圖)